

# 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 (9)

자료제공 환경부

## PART V. 환경분야별 정책 평가

### 1.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 중 우선 해결과제

#### 결과분석

□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(52.7%)가 '먼지·매연'을 지적함. 그 다음 해결과제로는 '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' (28.8%), '산성비' (9.2%), '지하공간내 공기오염' (5.9%), '악취' (3.4%) 순으로 나타남.

■ '먼지·매연'을 지적한 의견은 30대(58.2%), 자동차 비소유(57.6%)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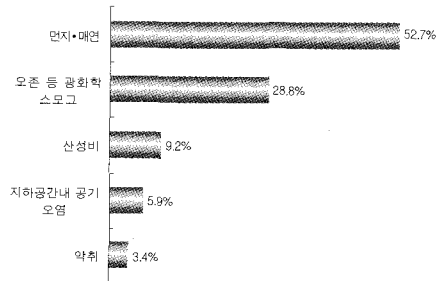
■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, 서울(30.7%), 인천/경기(30.6%), 대전/충청(41.1%)에서는 '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'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.

#### 결과분석

■ 95년 8월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(74.0%)가 '자동차 매연'을 지적함. 그 다음 해결과

제로는 '공장 매연 등' (22.5%), '가정용 난방 매연' (0.3%), '기타' (0.5%) 순으로 나타남.

■ 전체적으로 대도시의 공기오염 분야에서는 먼지 및 자동차 매연문제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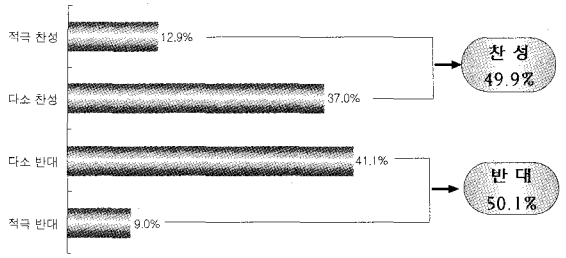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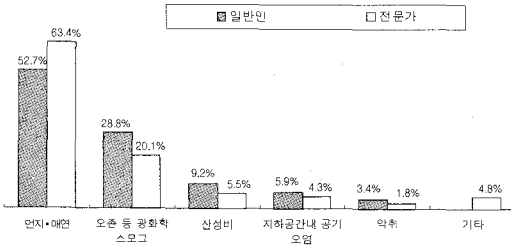
< Base = 1,500 >

95년 8월	
항목	응답률
· 자동차 매연	74.0%
· 공장 등 매연	22.5%
· 가정난방 매연	0.3%
· 기타	0.5%

#### 결과분석

□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, 과반수(63.4%)가 '먼지·매연'을 지적함. 그 다음 해결과제로는 '오존 등 광화

학 스모그' (20.1%), '산성비' (5.5%), '지하공간내 공기오염' (4.3%), '악취' (1.8%) 순으로 나타남.



< Base = 1,500 >

## 2.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은 49.9%(적극 찬성 12.9%, 다소 찬성 37.0%),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50.1%(적극 반대 9.0%, 다소 반대 41.1%)로 나타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.

■ 자동차 소유자(1,113명)의 경우 역시, 찬성(50.1%)과 반대(49.9%)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경유이용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(61.7%)이 높게 나타나 주목됨.

■ 자동차 종류별로 경유차량 소유자 경우,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68.8%로 다른 차종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휘발유차량 소유자 (826명)

- 찬성(53.8%) > 반대(46.2%)

경유차량 소유자 (231명)

- 찬성(31.2%) < 반대(68.8%)

LPG차량 소유자 (106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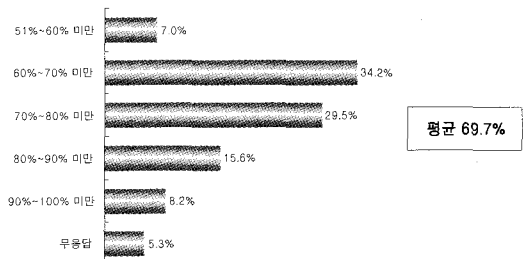
- 찬성(55.7%) > 반대(44.3%)

## 2-1. 경유가격 인상의 적정선

### 결과분석

□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유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(748명)에게 경유가격의 적정 인상폭을 질문한 결과, 평균 69.7%로 나타남.

■ 특히 자동차 소유자 중 경유가격 인상을 찬성하는 응답자(558명)의 평균 인상폭은 69.9%로 조사됨.



< Base=748 >

## 3. 식수 음용 실태

### 결과분석

□ 식수 음용 실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(59.1%) 이상은 '수돗물을 끓여서' 마시는 것으로 조사됨. 그 다음으로 '약수물 이용' (13.9%), '수돗물을 정수하여'

마십' (13.7%), '생수를 사서 마십' (5.0%), '우물/샘물 이용' (4.2%), '수돗물을 그대로 마십' (2.5%) 순으로 나타남.

- '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'는 의견은 20대(63.1%), 30대(64.6%), 대구/경북(73.6%), 광주/전라(64.5%) 거주자, 화이트 칼라(63.4%)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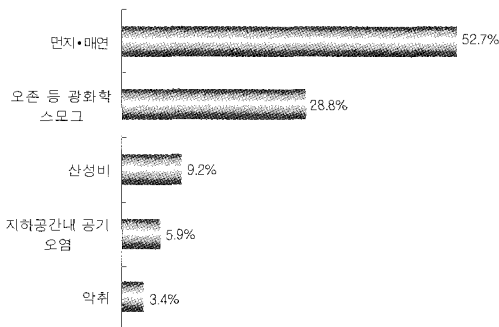
'약수물을 떠와서 마신다'는 의견은 강원(24.5%)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'수돗물을 정수하여 마신다'거나 '생수를 사서 마신다'는 의견은 대재이상 고학력자 중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- 가정용 정수기를 이용한 정수처리 수돗물 음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식수 음용 형태	응답률			
	2000년 3월	97년 9월	96년 1월	95년 8월
· 수돗물을 끓여서 마십	59.1%	58.8%	61.5%	47.9%
· 산에서 약수물을 떠와서 마십	13.9%	15.3%	15.5%	23.3%
·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하여 마십	13.7%	10.1%	7.0%	5.4%
· 먹는 샘물(생수)을 사서 마십	5.0%	5.9%	5.1%	10.7%
· 우물, 샘물 등을 이용	4.2%	4.7%	4.2%	9.8%
· 수돗물을 그대로 마십	2.5%	4.6%	4.0%	2.8%
· 약수를 끈혀 마십	1.4%	-	-	-
· 약수물을 정수 후에 마십	0.2%	-	-	-
· 지하수	-	-	2.6%	-

#### 4. 수돗물의 식수이용 적합성



< Base = 1,500 >

#### 결과분석

- 95년 8월 조사와 96년 1월 조사, 97년 9월 조사,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, '수돗물을 끓여서' 마시는 비율이 1순위로 조사됨. 그러나 약수물을 음용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정수기를 통해 정수하여 음용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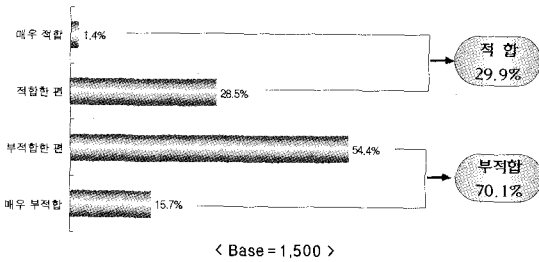
#### 결과분석

- 수돗물의 식수이용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, 수돗물이 식수로 '적합하다'는 긍정적 의견은 29.9%(매우 적합 1.4%, 다소 적합 28.5%)인 반면, '부적합하다'는 부정적 의견은 과반수가 넘는 70.1%(매우 부적합 15.7%, 다소 부적합 54.4%)로 조사됨.

- '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'는(78.9%), 부산/경남(77.2%), 대전/충청(77.5%), 권역별로 대도시 거주자(74.7%)에서, '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다'는 의견은 광주/전라(53.0%), 강원(62.3%)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적 차이를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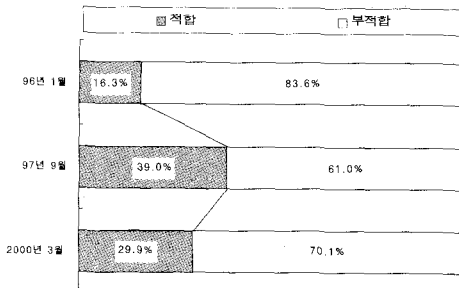
-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, 수돗물의 식수이용에 대한 '불신감'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.

#### 4.1. 수돗물의 식수 부적합 이유



**결과분석**

□ 과거 조사와 비교해 볼 때, 수돗물의 식수이용 적합성에 대해 '적합하다'는 긍정적 의견은 96년 16.3%에서 97년 39.0%로 증가하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29.9%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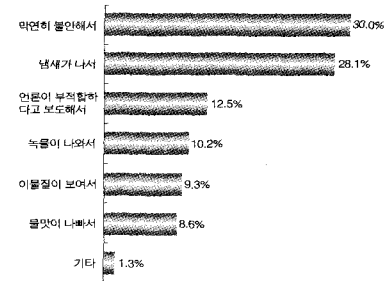
**결과분석**

□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1,052명을 기준으로 부적합 이유를 질문한 결과, '막연히 불안해서' (30.0%)라는 의견과 '냄새가 나서' (28.1%)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언론의 부적합 보도' (12.5%), '녹물이 나와서' (10.2%), '이물질이 보여서' (9.3%), '물맛이 나빠서' (8.6%) 순으로 나타남.

■ '막연히 불안해서' 라는 의견은 군지역(35.6%), '냄

새가 나서' 의견은 부산/경남(41.3%), 대구/경북(32.8%) 거주자, 주부(31.4%)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, 수돗물의 식수 부적합 원인은 구체적인 부적합 요인(냄새)과 아울러 사회적 불안 심리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.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정수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이 요망됨.



**5. 수돗물의 對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 (\* 중복응답)**

**결과분석**

□ 수돗물의 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해결 과제로는 '수돗물 정수 및 검사결과 완전 공개' (1순위 36.1%, 종합 49.2%)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. 그 다음으로 '상수원 이전 및 오염방지 시설완비' 1순위 20.2%, 종합 39.0%), '수질 검사 항목 증설 및 기준강화' (1순위 15.0%, 종합 32.9%), '급배수 시설 개선' (1순위 14.9%, 종합 39.9%) 순으로 나타남.

■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1차 과제는 수돗물 정수 및 수돗물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여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됨.

다음호에 계속...